

경제

지역 건설사 올 해외수주 급증

오만·베트남 등 8개국서 1억7500만불
작년보다 223% 늘어... 업체수도 7개사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들이 해외 눈을 돌리고 있다. 해외 진출 업체 수가 늘고, 수주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해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30만달러보다 223% 늘어났고, 2008년(4841만9000달러)에 비해서는 262% 증가한 규모다. 해외 진출 업체도 지난해 같은 기간 3개사에 그쳤지만 올해는 벌써 7개사가 수주 성과를 냈다. 해외 수주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중동 주요 국가의 플랜트와 중앙아시아 수자원관리 사업 등의 발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건설시장을 지역 업체들이 적극 공략한 덕분이다.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주)한백(대표이사 윤홍)은 방글라데시에서 3083만4000달러 규모의 메그나갓드~아민바자 400KV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따냈다. 이 사업은 오는 2012년 3월 말까지 진행된다. 금호산업(대표이사 이연규)은 베트남에서 아시아나 플라자 사업(3269만4000달러)과 타임스퀘어 빌딩 공사(1억131만1000달러)를 수주했다. 여수의 일아이엔씨(대표이사 유원찬)는 사우디 데잠 중유저장탱크 제

작성처 공사(330만6000달러)를, 화순의 동신기술개발(대표이사 최귀열)은 세네갈 포도르지역 관개 개발사업(18만4000달러)과 우즈베키스탄 수자원관리 부문 사업(264만5000달러)을 따냈다. 또 여수의 삼흥전력(대표이사 정석만)은 아이티 단비부대 주둔지 시설공사(46만4000달러)를, 여수의 유한기술(대표이사 장승혁)은 167만4000달러 규모의 오만 ORPC 원유탱크 2곳의 내부 세정 작업을, 광주 프 로텍은 중국 장춘 금호타이어 2기 성형기 추가 전기공사(212만5000달러)를 수주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산업은행이 호남지역 고객들을 위해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감사와 희망의 6월 사랑 국악 나들이' 행사에서 부채춤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유성 행장 "경영위기 지역업체 적극지원"



産銀 임원진 전원 광주서 현장 밀착 경영
대우일렉 방문·상공인들 만나 애로 청취
민 행장 일행은 광산구에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와 G-금강을 방문해 애로점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민유성(사진) 행장과 임원들이 광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에서사함을 청하는 등 현장경영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민 행장 등 전체 임원 14명은 지난 4일 광주를 처음으로 단체방문한 뒤 산업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금호산업·대한조선의 위크아웃에 이어 남양건설·금광기업의 경영난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인 점을 감안한 행보였다.

민 행장은 또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와 전화통화에서 경영위기에 빠진 건설업체와 그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으며 "위극모담"을 약속했다. 민 행장은 이날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감사와 희망의 6월 사랑 국악나들이' 행사에서 지역 주요 경제 인사들을 만나 초청해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박홍서 광주상의 회장은 민 행장과 한 자리에 앉아 지역현안

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임성근 광주지방 국세청장,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임종식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장, 최종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도 산은 임원들과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 행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금호생명이 경영정상화 과정을 거치면 산은금융지주 계열사로 합류할 예정이라"며 "산은은 그동안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해왔으며, 이제는 기업·개인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금융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화토건·남광·남해종합개발·남흥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 잘했다"

국토부, 광주·전남 4곳 최우수 업체 선정
찰량가자적 사전심사)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시공능력평가에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간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받게 된다. 남양건설·금광기업·삼능건설·동광건설·금호산업·송촌종합건

한 호반건설·제일건설·우미건설은 PQ에서 1점 가점, 시공능력평가 4%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권 평가에서는 영진종합건설·대아건설·남영건설 등 지역 53개사가 90점 이상을 받아 최우수 업체로 선정,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1998년부터 매년 전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실적, 협력관계의 안정성,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 등을 평가해 60점 이상을 얻은 우수 건설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 '대박신화' 흔들리나

노조 주말특근 거부 '쏘울' '스포티지' 생산 차질
기아자동차 노조의 주말 특근 거부로 '대박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쏘울'과 '스포티지'의 주말 생산라인이 멈췄다. 이로 인해 스포티지R 600대와 쏘울 570대 등 총 1100여대의 생산에 차질이 일어났다. 6일 기아차 노조와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달 말 노사간 '6월 특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날 주말 특근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처음으로 광주공장을 비롯해 전 공장이 주말에 멈춰섰다. 광주공장은 이날 1, 2공장에서 8시간씩 주말 특근을 실시해 쏘울 570대와 스포티지R 600대를 생산할

'쏘울' 美서 월간 최다 판매

5월 한달 6134대 팔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크로스오버 차량 '쏘울'이 미국 진출 후 월간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쏘울은 지난 5월 미국 시장에서 6134대가 판매돼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시판된 이래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달성했다. 쏘울은 또 '박스카(Box car)'의 원조라 불리는 닛산 큐브에 내줬던 박스형 차량 판매 1위 자리를 지난 2월 재탈환한 뒤 4개월 연속 1위에 올랐다. 특히 5월에 큐브는 2295대, 도요타 사이언XB는 1879대가 팔려 쏘울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쏘울이 미국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현지 업계와 전문지의 호평과도 무관하지 않다. 쏘울은 올해 초 월드카오브더이어 조지위원회가 선정한 '올해의 자동차 디지안'에서 최종 3개 후보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로부터 '가장 안전한 차량'에 선정되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등 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Lists lottery results for 6/29.

Table with columns: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Shows market indicators.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병원건물, 상무지구 중심지, 대지1010㎡(305평) 건물2996㎡ (906평) 공시지가 27억 3천 400만원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